

## 성경 헬라어 관사 번역에 대한 교육적 제안

박형대\*

### 1. 들어가는 말

신약성경에서 관사<sup>1)</sup>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약 2만 번, 혹은 일곱 단어 중 한 번” 나오는,<sup>2)</sup> 사용 횟수 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헬라어 문법책에서 관사를 다루는 분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블라스(F. Blass) · 데브루너(A. Debrunner) · 핑크(R. W. Funk)는 관사를 위해 15면[본문의 1.9%]을,<sup>3)</sup>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43면[본문의 3.5%]을,<sup>4)</sup> 왈리스(D. B. Wallace)는 85면[11.7%]을<sup>5)</sup> 할애한다. 일반 원칙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 책 모두 관사를 용례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매우 복잡하다. 반면, 관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간단히 제시하는 편이다. 블라스 · 데브루너 · 핑크는 관계 · 지시 · 총칭을,<sup>6)</sup> 로버트슨은 지시 · 관계 · 한정을,<sup>7)</sup> 왈리스는 한정 · 동일시 · 개념화를<sup>8)</sup> 관사의 기능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관사지만 헬라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을 비교해 보면 거의 번역되지 않았다. 번역되더라도 지시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 신약학

\* 이 논문은 제17차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정기논문발표회(2008년 9월 27일)에서 “헬라어 관사의 우리말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의 수정본이다. 학회에서 유익한 논평과 조언을 해주신 회원들과 논문 심사 과정에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1) 헬라어에는 영어처럼 부정관사나 정관사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정관사’라는 용어 대신 ‘관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207. 정확한 숫자는 19889(Mounce's *Biblical Greek Vocabulary*), 19863(BibleWorks 7) 등 차이가 있다.
- 3) F. Blass, et al.,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31-145. 이 책의 독일어 초판은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4)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2nd ed.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754-796.
- 5) Wallace, *Greek Grammar*, 206-290.
- 6) BDF §249-252.
- 7) Robertson, *Grammar of the GNT*, 755.
- 8) Wallace, *Greek Grammar*, 209-210.

관형사로<sup>9)</sup>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헬라어 문법책에 ‘헬라어에는 영어의 부정관사가 없고 정관사만 있다는 설명과 함께, 지시관형사 ‘그’로 번역할 것이 제안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0)</sup> 헬라어 문법 강의 시간에도, 연습문제에 있는 관사를 모두 지시관형사로 번역하도록 배운다 헬라어 관사가 있는데 ‘그’를 붙이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못한다.

문법 시간에 배운 대로 한다면,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관사가 ‘그’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성경 번역자들이 헬라어 관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관사에 대해 기초 문법책에 제시된 내용이 말 그대로 ‘기초적’임을 번역자들이 알기에 관사를 모두 ‘그’로 번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장동수의 중급 헬라어 문법책에는 잘 나타나 있다.

헬라어에는 영어와 같은 부정관사는 없고 ... 정관사만 있다. 영어나 한글로 이 정관사를 옮겨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헬라어의 정관사는 임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헬라어 정관사는 구문론적으로 (격을 표시한다)든 의미론적으로(어떤 명사를 특성화시킨다)든 어떤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용례나 뉘앙스가 모호하기 때문에 각 경우를 다 분류해낼 수 있는 정확한 규칙을 세우기가 아주 곤란하다.<sup>11)</sup>

최근 강신욱은 헬라어 관사를 “한국어 문법에는 없으나 그것을 삭제할 경우 그 문법 요소가 지니는 미묘한 어감이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어떤 국역 성경 번역에서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계 12:14의 ‘투 아에투 투 메갈루’(του ἄετου του μεγάλου)]의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쓰인 헬라어 관사를 “그”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sup>12)</sup> 이처럼 헬라어 관사를 번역하기 어렵다면,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더욱이 영어의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국어의 특정 개념으로 헬라어 관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소고를 통해, 성경 헬라어 관사 번역에 대한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9) “그는 멋지다”의 ‘그’는 지시대명사이고, “그 사람은 멋지다”의 ‘그’는 지시관형사이며, “인간성이 그러하다”의 ‘그러하다’는 지시형용사이다.

10) 참고. 박창환, 『신약성서 회답어교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962]), 39. 이순환, 『신약성서 헬라어』(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99 [1996]), 29-30. 류효영, 『헬라어 교본: 문법과 기초 구문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45.

11) 장동수,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 어형론과 문장론』(서울: 요단출판사, 2001 [1999]), 40.

12) 강신욱, “요한계시록의 정관사 번역 문제-요한계시록 12:14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2 (2008), 140, 145, 157.

그럼, 먼저 헬라어 관사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예로 사도행전 9:1-7을 살펴보자.

## 2. 신약성경 헬라어 관사의 우리말 번역의 예: 사도행전 9:1-7을 중심으로

1 Ὁ δὲ Σαῦλος ἔτι ἐμπνέων ἀπειλῆς καὶ φόνου εἰς τοὺς μαθητὰς τοῦ κυρίου, προσελθὼν τῷ ἀρχιερεῖ 2 ἠτήσατο παρ' αὐτοῦ ἐπιστολάς εἰς Δαμασκὸν πρὸς τὰς συναγωγάς, ὅπως ἂν τινὰς εὕρῃ τῆς ὁδοῦ ὄντας, ἄνδρας τε καὶ γυναῖκας, δεδεμένους ἀγάγῃ εἰς Ἱερουσαλήμ. 3 Ἐν δὲ τῷ πορεύεσθαι ἐγένετο αὐτὸν ἐγγίξειν τῇ Δαμασκῷ, ἐξαίφνης τε αὐτὸν περιήστραψεν φῶ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4 καὶ πεσὼν ἐπὶ τὴν γῆν ἤκουσεν φωνὴν λέγουσαν αὐτῷ· Σαοὺλ Σαοὺλ, τί με διώκεις; 5 εἶπεν δέ· τίς εἶ, κύριε; ὁ δέ· ἐγὼ εἰμι Ἰησοῦς ὃν σὺ διώκεις· 6 ἀλλὰ ἀνάστηθι καὶ εἴσελθε εἰς τὴν πόλιν καὶ λαληθήσεταιί σοι ὅ τί σε δεῖ ποιεῖν. 7 οἱ δὲ ἄνδρες οἱ συνοδεύοντες αὐτῷ εἰστήκεισαν ἔνεοί, ἀκούοντες μὲν τῆς φωνῆς μηδένα δὲ θεωροῦντες.

사도행전 9:1-7에는 관사가 15회(위 문단에서 밑줄 그어진 단어) 나온다. 관사가 쓰인 헬라어 표현과 『개역』(1961년판)과 『개역개정』(1998년판)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sup>13)</sup>

1. Ὁ δὲ Σαῦλος(1절)	사울이/사울이
2/3. εἰς τοὺς μαθητὰς τοῦ κυρίου(1절)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4. τῷ ἀρχιερεῖ(1절)	대제사장에게/대제사장에게
5. πρὸς τὰς συναγωγάς(2절)	여러 회당에/여러 회당에
6. τῆς ὁδοῦ(2절)	그 도를/그 도를
7. Ἐν δὲ τῷ πορεύεσθαι(3절)	가더니/가다가
8. τῇ Δαμασκῷ(3절)	다메섹에/다메섹에
9.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3절)	하늘로서/하늘로부터
10. ἐπὶ τὴν γῆν(4절)	땅에/땅에
11. ὁ δέ(5절)	가라사대/이르시되
12. εἰς τὴν πόλιν(6절)	성으로/시내로

13) 다른 한글 번역 성경도 관사 부분의 번역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

13/14. οἱ δὲ ἄνδρες οἱ συνοδεύοντες αὐτῶ(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15. τῆς φωνῆς(7절) 소리만/소리만

이 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나오는 관사만이 번역 과정에서 우리말로 표현되었고, 나머지 13개의 관사는 번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헬라어 관사 번역에 관한 한 『개역』, 『개역개정』 모두 차이점이 전혀 없다. 그럼, 번역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13개의 관사는 정말 고려될 가치가 없는 것일까? 또 번역된 두 경우는 번역이 적절하다 할 수 있을까? 먼저 번역된 두 경우의 적절성을 따져본 후,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 부정사와 분사 앞에 쓰인 경우, 고유명사 및 보통명사 앞에 쓰인 경우 순으로 살펴보자. 본 소고에서는, 보통명사 중 ‘제자, 대제사장’만 다루고, ‘하늘, 땅, 도시, 남자, 소리’에 붙은 관사는 지면 관계 상 논외로 한다.

## 2.1. 번역된 두 경우

### 2.1.1. 회당

다섯 번째 관사는 ‘회당’이란 단어에 붙어 있다. 누가행전에서 ‘회당’이란 단어에는 사도행전 17:1의 것만 제외하고 모두 관사가 붙어 있다. 일단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이 어떤 것들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회당’에 관사가 처음부터 쓰여도 될 것이다. 그럼 17:1의 ‘회당’ 앞에는 왜 관사가 쓰이지 않았을까? 16장에서 새로운 전도지역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소개할 때 이전 전도여행 때와 달리 회당이 없고 ‘강가에 모인 여인들’만 있었음이 강조되었다(16:13).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이다(17:1). 기대하기 힘든, 그러기에 독자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회당이므로 관사가 빠진 듯싶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9:2의 ‘회당’에 붙여진 관사를 ‘여러’로 번역하면 본문이 의도하지 않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여러’라는 표현에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라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회당’ 앞에 쓰인 복수 관사는 다메섹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서, 독자도 알 것으로 기대되는 ‘보통’의 회당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사를 번역할 때, ‘여러’보다 한정/지시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1.2. 도

사도행전에서 ‘길’ 혹은 ‘도’로 번역된 “호도스(ὁδός)”는 ‘왕래를 위한 길’(1:12; 8:26, 36; 9:17, 27; 25:3; 26:13), ‘삶의 태도 혹은 방향’(8:39; 14:16), ‘생명

혹은 구원의 길’(2:28; 16:17), ‘주 혹은 하나님의 길’(9:2; 13:10; 18:25, 26; 19:9, 23; 22:4; 24:14, 22)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중 관사 없이 사용된 것은 3개이다(1:12; 2:28; 16:17). 1:12의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안식일 길]”이란 표현이 다른 ‘왕래를 위한 길’에 비해 독자에게 낯선 표현이라 관사가 빠진 것 같다. 2:28의 “생명의 길”은 헬라어 구약성경 시편 15편 11절(시 16:11, MT)의 인용이다. 16:17의 “구원의 길”은 접하는 여종의 말의 직접인용에 들어있는 표현이다. 접하는 여종은 청자들과 공유되지 않은 어떤 ‘구원의 길’을 언급했을 수 있다.

9:2에 관사와 함께 쓰인 ‘도’는 ‘복음 혹은 복음을 통해 제시된 진리의 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쓰인 것이다. 그런데도 관사가 붙어 있다. 이는 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진리의 길을 알고 확신한, 1차 독자 데오빌로에게 ‘복음 혹은 복음을 통해 제시된 진리의 길’이 이미 자리 잡힌 개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9:2의 ‘길’ 앞에 쓰인 관사가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체계 혹은 삶의 양식을 가리킨다면, 이를 의미하는 표현이 번역에 사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역』이나 『개역개정』처럼 ‘그 도’로 번역해도 되겠지만, 헬라어에 지시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한정지시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더 좋을 듯하다.

## 2.2.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sup>14)</sup>

“주여 뉘시오니이까?”(9:5)라는 사울의 질문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대답 사이에는 관사와 접속사인 “호 데(ὁ δε)” 외에, “가라사대/이르시되”로 번역할 다른 단어는 없다. 관사와 접속사가 반영된 번역이 필요하다 여기서 관사는 남성이므로 여성명사인 ‘소리’라는 단어를 가리키지 않고, ‘나’와 ‘예수’(9:4)를 지칭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사 없이도 주되신 예수님을 지칭[한정/지시]할 수 있는 단어로 남성 관사를 번역하면 좋을 듯하다.

## 2.3. 부정사와 분사 앞에 쓰인 경우

### 2.3.1. 가더니/가다가

“엔 토(ἐν τῷ)”+부정사 구문’(9:3)에서 관사가 쓰였다. 이 구문은 대개 시간수단, 결과의 의미를 가진다.<sup>15)</sup> 이 구절에서는 시간 혹은 수단을 의미할 수 있다

14) 이런 용례를 위해서는 W. F. Moulton and A. S. Geden, *Concordance to the Greek New Testament*, 6th ed. fully revised (London: T & T Clark, 2002), 726-727 참고.

시간으로 본다면 ‘갈 때에’ 혹은 ‘가더니’로, 수단으로 본다면 ‘가면서’ 혹은 ‘걸어서’로 해석 가능하다. 관용구에서 사용된 관사이므로 번역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행전에서 이 구문은 매우 독특한 경우에만 “포류오(πορεύω)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누가행전에 87회 나오는 “포류오(πορεύω)동사는 세 개만 “엔 토 (έν τῷ)”+부정사 구문으로 쓰이는데(눅 10:38; 17:11; 행 9:3), 세 경우 모두 중요한 전환이 있을 때 사용된다. 따라서 부정사 앞에 쓰인 관사를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 2.3.2. 같이 가던 사람들은

열네 번째 관사는 앞 명사 ‘남자들’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함께 길을 간다’는 분사의 주어가 된다(οἱ δὲ ἄνδρες οἱ συνοδεύοντες αὐτῷ). 분사 앞에 관사가 없어도 되기에 관사가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뭔가 관계설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관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관사+분사’ 구문의 특성이 반영되면 더욱 좋은 번역이 될 것이다.

## 2.4. 고유명사 앞에 쓰인 경우

### 2.4.1. 사울

첫째 관사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쓰였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사울’이란 이름은 7:58, 8:1, 3에 나오는데, 모두 관사가 없다. 9:8의 ‘사울’도 관사 없이 나오는데, 유독 9:1의 ‘사울’ 앞에만 관사가 붙었다.<sup>16)</sup> 그러므로 9:1의 ‘사울’ 앞에 관사가 사용되었음이 어떤 형태로든 번역문에 드러나야 할 것 같다.

번역을 위해 ‘사울’ 앞에 쓰인 관사의 기능을 따져보자. 먼저, 이 관사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알려 준다. 8:4-40은 전도자 빌립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고 9:1 이하의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다. 9:1의 첫 관사는 접속사 “테(δέ)와 함께 두 문단 사이를 연결해준다. 동시에 이 관사는 바로 앞 문단(8:4-40)과 9:1-9을 연결한다. 8:4-40의 앞뒤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이 사울이므로(7:58; 8:1, 3; 9:1, 8), ‘사울’ 앞에 관사를 첨가함으로써 이전에 언급된 내용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 한정과 지시 기능이 돋보인다. 더불어 관사가 접속사와 함께 쓰임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다.

15) Wallace, *Greek Grammar*, 593-598.

16) 사도행전에 쓰인 ‘사울’ 혹은 ‘바울’ 이름 전체를 고려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지면 관계 상 이 글에서는 행 9:1-9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9:1의 ‘사울’ 앞에 붙은 관사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잠을 주어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신호이기도 하며 앞에서 언급한 사람을 재 언급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 2.4.2. 다메섹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이란 지명은 13회 나온다.<sup>17)</sup> 이 중 세 경우만 관사와 함께 쓰였다(9:3; 22:6; 26:12). 관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다메섹을 강조하는 것 같다. 문맥을 보면, 세 경우 모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과 관련된다. 아마도 그 극적 상황이 일어난 장소로서의 ‘다메섹’을 강조하기 위해 관사를 붙인 것 같다. 그러므로 해석 시 ‘그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가 다메섹이란 지명 앞에 들어가서, 관사의 한정지시 기능을 표현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 2.5. 보통명사 앞에 쓰인 경우

#### 2.5.1. 제자

둘째 관사는 ‘제자’에 붙은 관사이다. 이 관사가 ‘주’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기에 붙은 관사라고 생각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지 않은 경우가 5개 있는데(6:17, 40; 14:26, 27, 33),<sup>18)</sup> 그 중 4개에 소유대명사가 붙어 있다(6:17; 14:26, 27, 33).<sup>19)</sup> 또, ‘주’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항상 함께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사도행전 9:1-7 바로 앞에 쓰인 ‘주의 천사’ (“앙겔로스 데 퀴리우” “Ἄγγελος δὲ κυρίου”), 8:26)와 ‘주의 영’ (“프뉴마 퀴리우” “πνεῦμα κυρίου”), 8:39) 둘 다 ‘주’나 피수식어 앞에 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물론, ‘주’라는 단어의 한정을 받는다고 수식을 받는 명사에 관사가 항상 사용되는 것도, 항상 사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8:16의 ‘주 예수의 이름’ (“토 오노마 투 퀴리우 예수” “τὸ ὄνομα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에는 ‘이름’과 ‘주’ 앞에 각각, 5:9의 ‘주의 영’ (“토 프뉴마 퀴리우” “τὸ πνεῦμα κυρίου”)에는 수식을 받는 ‘영’ 앞에만, 3:20의 ‘주의 앞’ (“프로소푸 투 퀴리우” “προσώπου τοῦ κυρίου”)에서는 ‘주’에만 관사가 사용된다. 그러기에 ‘주의 제자들’이란 표현에 사용된 두

17) 행 9:2, 3, 8, 10, 19, 22, 27; 22:5, 6, 10, 11; 26:12, 20.

18)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제자’에는 모두 관사가 붙어 있다(5:30, 33; 6:1, 13, 20; 7:11, 18(2회); 8:9, 22; 9:14, 16, 18, 40, 43, 54; 10:23; 11:1(2회); 12:1, 22; 17:1, 22; 18:15; 19:29, 37, 39; 20:45; 22:11, 39, 45).

19) 이 소유대명사는 모두 예수님을 지칭한다.

관사 모두, 번역 시 어떤 형태로든 표현될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의 ‘주’에 대해서는 분석할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으므로<sup>20)</sup>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제자’ 앞에 붙은 관사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사도행전의 ‘제자’란 단어 앞에는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사가 붙어 있다.<sup>21)</sup> 관사가 붙지 않은 경우가 사도행전에 네 곳 있는데, 구체적인 제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sup>22)</sup> 아마도 1차 독자 데오빌로가 잘 모르는, 특정 제자를 지칭할 때는 관사가 사용되지 않은 듯싶다. 반면, 데오빌로가 일반적인 ‘제자’ 개념으로 이해할 만한 곳에서는 ‘제자’ 앞에 관사를 사용한 것 같다<sup>23)</sup> 따라서 ‘주의 제자들’의 제자들 앞에 ‘일반적인 제자 개념’을 언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정/지시 기능을 하는 단어가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 2.5.2. 대제사장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이란 단어 앞에는 단·복수를 무론하고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관사가 쓰였다<sup>24)</sup> 대제사장 직이 중요하고 이 직분과 관계된 사람이 소수이므로, 1차 독자 데오빌로도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과 현직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제사장’이란 단어에 관사를 붙여도 잘 이해될 수 있다. 현직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므로 단수인 ‘대제사장’은 직무 수행 중인 대제사장을, 복수형은 대제사장 직을 지낸 적이 있는 ‘대제사장 그룹’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게와’를 소개할 때(19:14)와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을 치라 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한 부분(23:5)에서, ‘대제사장’이 관사 없이 쓰인다. 전자는 1차 독자 데오빌로가 잘 모르는 사람을 기록자가 소개하

20) 예를 들어, ‘주’가 하나님과 예수님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 학자들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참고. H. D. Park, “Lordship Claim for Jesus in Acts” (Th. M. thesi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2), 30-32; J. D. G. Dunn, “KURIOS in Acts”, J. D. G. Dunn, ed., *The Christ and the Spirit* (Cambridge: Eerdmans, 1998), 241-253.

21) 사도행전의 경우, 네 경우(9:10; 16:1; 19:1; 21:16)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사가 쓰였다(6:1, 2, 7; 9:1, 19, 25, 26[2회], 38; 11:26, 29; 13:52[오를 ‘제자’와 관계된 관사로 본다]; 14:20, 22, 28; 15:10; 18:23, 27; 19:9, 30; 20:1, 30; 21:4, 16).

22) 9:10에서는 ‘아나니아’를, 16:1에서는 ‘디모데’를, 19:1에서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21:16에서는 ‘오랜 제자 나손’을 소개할 때 관사가 각각 사용된다.

23) 누가복음의 경우, 6:40과 14:26, 27, 33에 관사 없이 쓰인 ‘제자’는 청자인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개념으로서의 ‘제자’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6:17에 관사 없이 쓰인 ‘제자’는 수식으로 쓰였기에 수식을 받는 ‘무리’라는 단어와의 관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4) 누가복음의 경우도, 9:22에서 ‘장로들’ 앞에 쓰인 관사가 ‘대제사장들’과도 연결된다고 볼 때, 3:2와 22:66에만 관사가 쓰이지 않았다.



는 것과, 후자는 바울이 공회의 청자와 공유되지 않은 대제사장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점에서, 관사와 함께 쓰인 ‘대제사장’(9:1)이 현직 대제사장을 한정/지시하여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어의 직전 용례인 단수형 ‘대제사장’(7:1)에 관사가 붙어 있다는 사실도 앞의 추론을 지지한다. 따라서 9:1의 ‘대제사장’을 번역할 때, 현직 대제사장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리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2.6. 요약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자들, 회당, 대제사장, 도, 다메섹’에 쓰인 관사와 홀로 쓰인(ὁ δὲ에 쓰인 열한 번째) 관사는 한정지시, 부정사 앞에 쓰인 관사는 전환, 분사 앞에 쓰인 관사는 관계설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번역이 채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울’에 쓰인 관사는 한정과 지시뿐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표현이면 좋겠다.

### 3. 신약성경 헬라어 관사의 영어 번역의 예

헬라어 관사의 우리말 번역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전에 위의 본문을 영역(英譯)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는지 NRS와 NIV를 예로 살펴보자.

1. Ὁ δὲ Σαῦλος	Saul/Saul
2/3. εἰς τοὺς μαθητὰς τοῦ κυρίου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against the Lord's disciples
4. τῷ ἀρχιερεῖ	to the high priest/to the high priest
5. πρὸς τὰς συναγωγὰς	the synagogues/the synagogues
6. τῆς ὁδοῦ	the Way/the Way
7. Ἐν δὲ τῷ πορεύεσθαι	Now as he was going/on his journey
8. τῇ Δαμασκῷ	Damascus/Damascus
9.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from heaven/from heaven
10. ἐπὶ τὴν γῆν	to the ground/to the ground
11. ὁ δὲ	The reply came/he replied
12. εἰς τὴν πόλιν	the city/into the city
13/14. οἱ δὲ ἄνδρες	The men who were traveling with him/
οἱ συνοδεύοντες αὐτῷ	The men traveling with Saul

## 15. τῆς φωνῆς

## the voice/the sound

위의 몇 구절에 헬라어 관사 영역(英譯)의 일반적 경향이 대체로 잘 나타나 있다.<sup>25)</sup> 먼저 NRS부터 보면, 영어의 정관사 용법 상 사용하기 힘든 경우 번역하지 않는다. 사람 이름인 ‘Saul’(1)과 지명인 ‘Damascus’(8)에 있는 관사, 부정사에 붙은 관사(7), 관용구(9)는 번역하지 않았다. 한편, 번역하는 경우 대부분 정관사를 사용하여 헬라어 관사를 표현하였고, 분사 앞에 쓰인 관사만 관계대명사로 번역했다(14).

NIV의 경우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정관사 사용을 줄이기 위해 “the disciples of the Lord”를 “the Lord’s disciples”로 번역한 것과(2/3),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어 분사 앞에 쓰인 관사를 번역하지 않은 것이 전부이다(14).

헬라어 관사를 정관사나 관계대명사로 영역(英譯)하는 경우,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영어 정관사 용법상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사를 사용하여 헬라어 관사를 표현할 수 없다. 둘째, 헬라어 관사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영어 용법 상 정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사를 넣어야 한다 셋째, 결국 영어 정관사 사용 유무로 헬라어 관사 사용 유무를 추론하기 어렵다 넷째, 관계대명사로 번역하는 경우, 헬라어 관계대명사를 번역한 것과 구별하기 어렵다 다섯째, 헬라어 관사가 독특한 기능을 하면 할수록, 헬라어 관사를 영어의 관계대명사로 번역하면 본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4. 신약성경 헬라어 관사의 우리말 번역을 위한 새로운 제안

앞의 용례로 볼 때, 신약성경에 쓰인 헬라어 관사는 한정, 지시, 관계 설정뿐 아니라 전환 기능과, 시간적 여유를 주는 쉽표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25) 신약성경 헬라어 관사의 영어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는 W. D. Mounce,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1993), 39-40 참고. “As in English, the Greek article is translated ‘the.’ The general rule is to translat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article. If an article is present, translate it. If there is no article, do not use ‘the.’ If there is no article you may insert ‘a’ before the noun if it makes better sense in English. For example, ‘ὁ ἄνθρωπος’ means ‘the man’ and ‘ἄνθρωπος’ means ‘man’ or ‘a man.’ … You will soon discover that the Greeks do not use the article the same way we do. They use it when we never would, and they omit it when English demands it. Languages are not codes, and there is not an exact word for word correspondence. Therefore, we must be a little flexible at this point.”

의미 없는 형태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마치 대명사처럼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영어와 같이 정관사나 관계대명사가 없는 우리말로 헬라어 관사를 번역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번역하지 않으면 편할 수 있지만, 관사가 신약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수록 헬라어 관사의 우리말 번역은 헬라어 교사들이 피하기 힘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헬라어 관사를 ‘거시기 혹은 거/계’로 번역할 것을 제안해 본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에 ‘거’와 ‘거시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sup>26)</sup>

거: I. 의존명사.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서술격 조사 ‘이다’와의 결합형은 ‘거’로, 주격 조사 ‘이’와의 결합형은 ‘계’로 나타난다. II. 대명사. ‘그거’의 준말. III. 감탄사.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뜻 없이 하는 말.

거시기: I. 대명사.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II. 감탄사.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거시기’와 관련된 두 논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박근영의 “‘거시기’의 문법화”이다.<sup>27)</sup> 박근영은 ‘거시기’가 대명사와 담화표지, [대응]과 [한정]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그에 따르면, 대명사로서의 거시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체언이나 용언을 ‘형식적’으로 대신한다”(31). “조사를 취할 수”도,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32). “‘거시기’는 지시 대명사보다는 [지시]의 의미가 약하지만 부정 대명사보다는 [지시]의 의미가 강하다”(34). “[지시]의 의미를 가지는 ‘이, 그, 저’와 결합하여 ‘이 거시기’, ‘그 거시기’, ‘저 거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37).<sup>28)</sup> ‘거시기’는 의식 속에 지시 대상이 있는 ‘상념 지시’를 한다(35).<sup>29)</sup> “화자는 어떤 것, 어떤 상태나 동작을 이르는 말을 생각해 낼 때까지 대명사를 사용하여 그 어휘의 빈칸을 매우면서 담화의 응집성 (coherence)을 유지시킨다.”(33) 이처럼 ‘거시기’는 대명사 기능과 담화표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 이 때, “청·화자가 공유하는 배경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찾기가 쉽다”(34).

26)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상 ㄱ~ㅁ (서울: 두산동아, 2000 [1999]), 226, 246.

27) 박근영, “‘거시기’의 문법화”, 『한국어 의미학』 7 (2000), 29-48.

28) 헬라어 관사도 지시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서도 ‘거시기’는 헬라어 관사와 유사하다.

29) “지시 대상이 발화 장면에서 있는 상황 지시”와 “지시 대상이 선행 발화에 있는 담화 지시”와 “지시 대상이 의식 속에 있는 상념 지시”가 있다(박근영, “‘거시기’의 문법화”, 35).

둘째, ‘거시기’는 “[대용]의 의미를 가지는 의존 명사 ‘분’, ‘것’과 결합한 ‘거시기 것’, ‘거시기 분’은 가능하지 않아서 [대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37) 더불어 부정 대명사와는 달리 ‘한정’의 기능도 한다(37-40). 박근영은 ‘한정’ 기능을 하는 ‘거시기’의 용례로 다음을 든다. 아래의 “‘거시기’는 [한정]의 의미를 가지므로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있다”(39).

갑: 거시기가 왔냐?

을: 예, 철수가 왔어요./ 아니요, 영수가 왔어요. (38)

‘거시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논문은 전성호의 “Levinon의 GCI 이론을 통한 ‘거시기’의 화용론적 분석”이다.<sup>30)</sup> 전성호는 “고정 대화 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s)”과 “특정 대화 함축(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s)” 두 가지 면에서 ‘거시기’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성호는 앞서 언급한 박근영의 논문에서 다룬 ‘거시기’는 “특정 대화 함축”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손자가 전라도 할머니에게서 ‘거시기 좀 가져와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시기’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거요?’라고 반문할 경우에는 청자가 화자의 PCI[특정대화함축]를 추론해내지 못한 것이다”(178-79)라 한다. 반면, ‘고정대화함축’으로 사용되는 ‘거시기’의 경우 “함축이 발생되고 해석되어지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178). “겉으로 보기엔 불분명해 보이는 ‘거시기’의 숨은 의미가 정해져 있는 몇 가지의 심리학적 원리와 언어적 장치에 의해서 그 의미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거시기’에 의해 발생하는 함축 역시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178).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는 의존명사·대명사·감탄사로서 지시 혹은 쉽표 역할을 하고, ‘거시기’는 대명사·감탄사로서 지시, 전환, 쉽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두 논문에 의하면, ‘거시기’는 지시, 대용, 한정 기능을 한다. 담화 표지로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유 정도에 따라 해석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문장 내의 다른 요소와 ‘거시기’와의 긴밀한 관계가 ‘거시기’의 사용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시기’는 관계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살펴본 헬라이어 관사의 기능과 유사하다. 물론 우리말 ‘거시기’는 헬라이어 관사처럼 성·수·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말은 본래 명사나 형용사가 성·수·격에 따라 변화하지 않기에, ‘거시기’가 헬라이어 관사처럼 변화하

30) 전성호, “Levinon의 GCI 이론을 통한 ‘거시기’의 화용론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23 (2007), 161-180.

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럼, 앞에 예로 든 9개의 헬라어 관사를 ‘거/게’나 ‘거시기’로 번역해 보자.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사 앞에 쓰인 관사의 경우, 전환과 지시의 의미를 부각시킬 경우에만 ‘거시기’를 사용한다. 나머지는 주로 ‘거’로 번역한다. 둘째,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거시기’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헬라어 구문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 셋째, 부정사 앞에 사용된 관사는 전환을 표시할 뿐 아니라 동사와 어울리도록 ‘게’로 번역한다. 넷째, 분사와 함께 쓰인 관사는 ‘~하는 거시기’로 번역하여 ‘관사+분사’ 구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1. Ὁ δὲ Σαῦλος(1절)	그런데 거시기 사울이
2. εἰς τοὺς μαθητάς(1절)	거 제자들에게 대해
4. τῷ ἀρχιερεῖ(1절)	거 대제사장에게
5. πρὸς τὰς συναγωγάς(2절)	거 회당으로
6. τῆς ὁδοῦ(2절)	거시기 도를
7. Ἐν δὲ τῷ πορεύεσθαι(3절)	그런데 게 가다가
8. τῇ Δαμασκῷ(3절)	거 다메섹에
11. ὁ δέ(5절)	그런데 거시기가
14. οἱ συνοδεύοντες αὐτῷ(7절)	같이 가던 거시기들은

‘거’와 ‘거시기’가 너무 많이 나오므로, ‘조금 거시기하다’고 느낄 수 있다. ‘거/게’나 ‘거시기’가 우리말 성경 번역에 거의 사용된 적이 없기에 위의 번역에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본문의 다른 요소는 그대로 두고 관사만 다르게 번역했기에, 어색함이 더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맥과 우리말 어법을 염두에 두고, ‘거시기’로 번역된 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보자.

1. Ὁ δὲ Σαῦλος(1절)	그런데 <b>바로 그</b> 사울이
6. τῆς ὁδοῦ(2절)	<b>바로 그</b> 도를
11. ὁ δέ(5절)	그런데 <b>그 분이</b>
14. οἱ συνοδεύοντες αὐτῷ(7절)	같이 가던 <b>자</b> 들은

‘사울’ 앞의 ‘거시기’는 한정과 지시뿐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바로 그’를 사용해 보았다. ‘도’ 앞에 쓰인 ‘거시기’의 한정/지시 기능도 ‘바로 그’로 표현해 보았다. 독립적으로 홀로 쓰인 관사는 예수님을 지칭하기에 ‘그분’으로, 분사와 함께 쓰인 관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기에 ‘자들’이라 번역해 보았

다.

신약성경의 7분의 1을 ‘거/계’ 혹은 ‘거시기’로 채우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관사의 기능이 번역에 반영됨으로써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면, 헬라어 우리말 번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신약성경에 쓰인 헬라어 관사 번역을 위해 ‘거, 계, 거시기, 바로 그, 그 분, 자들’ 등이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헬라어 문법 강의 시간에 이 단어들을 실험적으로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관사를 어떤 형태로든 번역하다보면, 우리말에 없는 관사가 본문에 쓰였음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번역 원칙의 반영이기도 하다. 헬라어 교육 초기부터 관사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 인지한다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5. 나가는 말

헬라어 관사는 사용횟수와 기능 면에서 반드시 번역에 반영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번역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번역된다 해도 주로 지시관형사로 번역되어 헬라어 지시대명사의 번역과 차별화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 헬라어 교육은 서양, 특히 영어권에서 발행된 문법책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에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으나, 용법 면에서 헬라어 관사와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우리말에는 영어에는 있는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없다. 관계대명사도 없다. 그래서 영어로 된 헬라어 문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어의 부정관사, 정관사, 관계대명사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영어의 부정관사·정관사·관계대명사와 헬라어 관사와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우리말로 통과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니 대부분의 헬라어 관사가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무시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9:1-7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헬라어 관사를 번역해야 할지, 번역한다면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할지 ‘거/계’나 ‘거시기’ 혹은 ‘바로 그’나 ‘자들’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표현들로 신약성경에 있는 헬라어 관사를 번역한다면 헬라어 관사의 특성이 잘 반영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계’나 ‘거시기’가 지시나 한정뿐 아니라, 대명사와 담화지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말 ‘거/게’나 ‘거시기’는 헬라어 관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지시, 한정, 관계뿐 아니라 대용 기능도 한다. 헬라어 관사를 ‘거/게’나 ‘거시기’로 번역해도 헬라어 관사 이상의 지면을 차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사가 하는 다양한 기능을 번역과정에서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점에서 헬라어 문법 교육 시간에 ‘거/게, 거시기, 바로 그, ~하는 자/분, ~하는 바, ~하는 것’ 등을 성경 헬라어 관사 번역을 위해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Keywords)

헬라어 문법, 번역, 관사, 거/게, 거시기.

Greek grammar, translation, article, Keo/Ke, Keosigi.

<참고문헌>(References)

- 강신욱, “요한계시록의 정관사 번역 문제요한계시록12:14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2 (2008), 139-160.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상 ㄱ~ㄴ, 서울: 두산동아, 2000 [1999].
- 류호영, 『헬라이어 교본: 문법과 기초 구문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박근영, “‘거시기’의 문법화”, 『한국어 의미학』 7 (2000), 29-48.
- 박창환, 『신약성서 히랍어교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962].
- 이순한, 『신약성서 헬라이어』,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99 [1996].
- 장동수, 『신약성서 헬라이어 문법: 어형론과 문장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1 [1999].
- 전성호, “Levinon의 GCI 이론을 통한 ‘거시기’의 화용론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23 (2007), 161-180.
- Blass, F., et al.,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Dunn, J. D. G., “KURIOS in Acts”, J. D. G. Dunn, ed., *The Christ and the Spirit*, Cambridge: Eerdmans, 1998, 241-253.
- Moulton, W. F., and Geden, A. S., *Concordance to the Greek New Testament*, 6th ed. fully revised, London: T & T Clark, 2002, 726-727.
- Mounce, W. D.,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1993.
- Park, H. D., “Lordship Claim for Jesus in Acts”, Th. M. thesi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2.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2nd ed.,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Abstract>

## **An Educational Suggestion for Translating the Biblical Greek Article**

Prof. Hyung Dae Park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Greek New Testament the article, ὁ, ἡ, τό, seems to be an essential element for translation in that it appears most frequently with versatile functions. Nevertheless, the Greek article is mainly omitt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t all the Korean Bibles. Simple omission may not be a good solution. At lectures on Greek grammar in Korea, in addition, it is generally suggested that the Greek article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like the demonstrative pronoun, such as 'Keu'. This suggestion is enough to make students have doubt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eek article and the demonstrative pronoun.

If the article did not have any important function within the sentence, it would be okay to despise it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However, if it had any essential, even diverse and so difficult to be defined, role in a sentence, undoubtedly it should find a space in the translated expression/text.

Expectantly in a sense, there are some expressions in Korean which may be seen as equivalent to the Greek article. They are 'Keo/Ke' and 'Keosigi'. Especially the latter is grammaticalized by Keun-young Park as a word referring to 'deixis', 'definiteness', 'substitution', 'gaining time', and 'hesitation'.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eek article and of 'Keo/Ke' and 'Keosigi', this article suggests to employ these words in order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Greek article and to translate it into Korean for the Bible.